

성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그리고 집단 자존심이 남녀 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홍 기 원[†] 김 명 소 한 영 석

호서대 경영학부

성균관대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 754명을 대상으로 소속 성집단에 대한 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집단 자존심 등의 척도를 이용하여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먼저 성별, 연령별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차이를 보았고, 성별에 따른 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그리고 집단 자존심이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성과 연령에 따른 평등의식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등검사의 네 하위 분야인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 별로 여성의 평등의식이 남성의 평등의식보다 높았고, 연령이 어릴수록 더 평등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학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정체성과,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그리고 집단적 자존감이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의 경우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과 집단 자존감이 남녀평등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집단 자존감, 그리고 추가로 정체성이 남녀평등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녀평등의식에서 정체성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주요어 : 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집단자존감, 남녀평등의식

* 본 논문은 한국심리학회 2002년 연차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 : 홍기원, (110-745)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120-1,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E-mail : kiwhong@office.hoseo.ac.kr

우리나라에서의 남녀평등의식을 조사한 많은 자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 심한 불평등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 유엔이 발간한 “2000년 인간 개발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남녀평등지수는 세계에서 30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왔다(시사저널 2000. 12. 7). 김양희와 정경아(2000)는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를 통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남녀평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대한주부클럽 연합회가 조사한 남녀평등실천지수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은 더 낮았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평등의식이 약했으며, 직업별로는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이 전업주부나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낮게 나왔다(한겨레신문, 1999. 8. 11). 이러한 불평등과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1999년 2월에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1년 1월에는 여성정책을 기획·종합하고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며,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또한 지난 2003년 2월에는 ‘재단법인 한국남녀평등교육진흥원(가칭)’ 설립발기인 대회가 거행 되었다.

우리사회의 남녀불평등 지각은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남녀대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차경호(1999)는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다룬 연구에서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만족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남학생들에 비하여 여학생들은, 정적정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일상생활 중에 여자가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더 많고 남녀차별이 도처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손승영, 박수자, 전방지, 조순경, 진수희, 황석만, 1999). 이들은 곧 실무에 나아가 일해야 하므로 이들이 지니는

남녀 성차에 따른 부조리나 위화감, 헤로운 심리적 건강이 국제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김양희와 정경아(2000)의 한국형 평등의식검사가 개발된 후, 지금까지 평등의식에 대한 많은 연구는 성별과 연령 및 직업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따른 차이를 밝히는 현상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즉 남녀의 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원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남녀의 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원을 찾는 것은 다음의 의의가 있다. 남녀의 평등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순히 평등의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남녀의 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찾는 것은 남녀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접근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녀평등의식의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지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과 연령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남녀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수로, 성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집단자존감을 소개하고, 이들이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성정체성

지금까지 국내에서 성역할정체성을 다룬 연구들(예 : 김득란, 1992; 정진경, 1990)에서는 여성이나 남성이 지니는 성역할 지각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관점을 취하였다. 즉, 개인차로서 남성이나 여성의 전형이 되는 성격특성이나 인지반응을 어느 정도 지니는지 측정하고, 이것이 여성성, 남성성 혹은 양성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이나 여러 후속 행동 및 결과들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인차의 관점

을 취하면 여성이 남성과 집단간 관계에서 여성이나 남성 전체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집합적인 현상은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김금미·한덕용, 2001; 김금미·한영석, 2003 재인용).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서는 인간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기상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가정한다. Tajfel과 Turner(1986)는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자신이 속한 범주에의 소속감, 즉 사회정체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간이 자신이 속한 집단(내집단)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긍정적 자기상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을 통해서 정적 자기평가를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려는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Karasawa, 1991). 한 집단이 다른 집단(외집단)과 비교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내집단을 평가하는 이유도 긍정적 자기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단간 사회비교 과정은 결정적으로 내집단 편애현상으로 나타난다(Hogg & Abrams, 1990, 48-54쪽; Karasawa, 1991).

내집단 편애는 외집단보다 내집단에 호의적인 정도, 즉 다른 집단에 비교해서 내집단에 더 호의적인 정서, 평가, 행동 및 행동의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지각과제나 분배과제에서 외집단보다 내집단에 대해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된 지각과 행동을 보일 때 이를 내집단 편애라고 한다. 따라서 내집단 편애 현상은 인간의 이기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정체성 이론으로 남녀차별을 설명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성 범주를 통해서 자기상을 갖고 있고, 즉 자기 성에 대한 사회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자기상의 일부가 되는 성범주를 통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

신의 성범주(내집단)에 대해서는 타범주(외집단)보다 더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된 지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편파된 지각과 행동이 정도가 지나쳤을 때 성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남녀평등을 저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자아구조가 개인정체(personal identity)와 사회정체(social identity)의 두 가지 하위체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한덕용, 2002). 이 가운데 사회정체는 성, 인종, 국가, 지역, 학과와 같은 사회범주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니게 되는 자아정체이다. 예를 들면, '나는 대한민국인이다' '나는 남성이다' '나는 심리학과 학생이다'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정체를 사회범주에 동일시할 때 나타난다. 사회정체이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Tajfel(1978, 63쪽)은 사회정체를 "자신이 사회집단의 성원이라는 지식과 그 집단의 성원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 및 정서적 의미로부터 파생되는 자기 개념의 일부"라고 정의했다.

한편, 개인정체는 개인이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규정할 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나는 ○○○다' '나는 활발하다'와 같이 자신의 이름, 성격, 신체적인 특징 등과 같은 것으로 자신의 정체를 개인에 동일시할 때 나타난다.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개인의 자아가 개인정체로 동일시되는가, 혹은 사회정체로 동일시되는가에 따라 자아개념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정체와 사회정체가 배타적이기보다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양극에 위치한다고 생각했다(김금미·한영석, 2003).

정리하면, 사회정체이론(Tajfel & Turner, 1986)은 상대적인 개인정체와 집단정체의 동일시 정도에 따른 사회범주 과정에서 내집단-외집단 구별이 생긴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

른 집단이나 범주와의 차이를 강조하게 되고 그 결과 내집단을 편애하게 된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여성의 경우,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금미·한영석, 2002), 남성의 경우,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의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김금미·한영석, 2003). 즉 본 연구에서 또한 남자 집단의 경우, 성정체성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낮고, 여성의 경우는 성정체성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사회정체성이론에서 높은 지위 집단의 성원들이 합당하고 객관적인 준거에 의한 지위 차이가 있을 때에는 내집단 편애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한다(e.g., Mullen et al., 1992). 즉, 높은 지위 집단의 성원이 집단의 지위로 인해서 내집단 편애를 보이는 상황이 정당하다면 집단간 편애를 보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Reichl(1997)의 연구 결과에서도 낮은 지위 집단의 성원들이 높은 지위 집단의 성원들보다 덜 차별적이었다. 김금미(2001)의 연구에서 성별사회정체성의 정서적 차원으로 집단몰입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소속 성범주에 대한 정서에 따라 남녀 평등의식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남성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 집단 보다 지위가 높다고 인식하였고,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이 싫지 않고, 화가 나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고 지각하였고, 이에 남녀평등의식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집단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였지만, 낮은 지위에 관계없이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싫지 않고, 화가 나지 않고, 부끄럽다고 지각하지 않을수록 남녀평등의

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미 지위 차이에 관계없이 정적인 사회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은 내집단 편애를 증가시켜서 상대적 우세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홍기원(200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정도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을 알아본 결과, 남녀에 관계없이 자신의 성에 만족 할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낮은 부적 상관의 결과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또한 남녀에 구분 없이 자신의 성에 대해서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므로 자신의 성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남녀평등의식이 낮다고 예측할 수 있다.

집단 자존감

긍정적 사회정체를 얻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자기가 속한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더 좋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골적인 내집단편애(in-group favoritism) 효과는 많은 연구들에서 흔히 관찰되어 왔으나(Brewer, 1979), 때로는 그러한 것이 내집단의 이미지에 해롭다면 그러한 방법의 사용을 억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핵심 집단원들에게 자신의 집단 소속에 따른 특혜를 생각하게 하면 집단적 죄의식을 일으키게 하므로 위협적일 수 있다(Branscombe, Slugoski, & Kappen, 1977).

그렇다면 남성들에게 자신들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낄 수 있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 중 불안하거나 부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남성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하여 더 경직되고 차별적인 지각과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자신이 우월한 지위에 놓여 있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고 오

히려 고양된 집단적 자존심을 느끼며 상대적으로 여유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남녀의 고정관념적 차이에 대하여 안정적인 이해를 하고 여성에 대하여도 덜 고정관념적이며 평등한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남성들의 경우 집단 자존감이 높을수록 평등의식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반대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는 죄의식 보다는 상대적 낮은 지위로 인해 부정적 정체성이 형성될 것이다.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낮은 지위로 인해 부정적 정체성을 갖게 될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정적 정체성 개선 전략을 사용한다고 소개한다. 사회정체성이론은 부정적 정체성 관리전략으로 다음 4가지로 구분하였다. 개인행동 전략에 해당하는 ‘사회적 이동’은 지위가 높은 집단에 가입하려고 시도하는 전략이다. 개인인지 전략에 해당하는 ‘개인화’ 전략은 개인정체성의 차원에서 정적 자기 평가를 얻고자 할 때 나타난다. 집합행동 전략인 ‘사회적 경쟁’ 전략은 소속 집단의 상대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집합인지 전략인 ‘사회적 창조’ 전략은 소속 집단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집단의 독특성과 우수성을 외집단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를 일컫는다(Tajfel & Turner, 1986).

또한 내집단이 부정적 사회정체성을 지니는 상황에서 사회정체성의 관리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한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면 Lalonde와 Silverman(1994)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다른 집단으로 이동을 의미하는 침투가능성(permeability)과 특출성에 따라서 상황도피, 상황 수용, 재평가 요구, 집단항의 가운데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특출하면 다른 전략보다 집단항의가 더

나타났다. Jackson, Sullivan, Harnish, 및 Hodge(1996)의 연구에서는 내집단의 지위가 낮아서 부정적 사회정체성이 높으나 개인이 다른 집단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 개인전략의 하나인 사회적 이동이 사용되고, 불가능하면 집합전략의 하나인 사회적 창조전략을 사용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들로부터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성별관계처럼 남녀의 물리적 침투가 용이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사회적 창조전략이나 집단 항의 같은 집합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행동을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려는 전략이므로 Tajfel과 Turner(1986)의 분류에 따르면, ‘사회적 경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여성의 경우 긍정적 정체성을 얻기 위해 사회적 경쟁전략의 하나로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자신의 성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이 높고, 자존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강도가 높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집단 자존감이 높을수록 죄의식으로 인해 남녀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날 것이고, 여성의 경우, 부정적 정체성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평등의식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방 법

참가자

충남 천안에 소재한 남녀 고교 중 인문계 및 실업계학생들 399명과 충남에 소재한 H대에서 심리학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355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이들의 남녀와 학력에 따른 빈도수는 표 1에 제시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계열 별로

표 1. 조사대상의 학력별 및 성별 분포(%)

구분	고등학생	대학생	전체
성별			
남성	196(26.1)	218(29.0)	414(44.6)
여성	200(29.1)	137(18.2)	337(55.4)
전체	396(52.7)	355(47.3)	751(100)

보편 인문계는 267명, 실업계는 130명이었다. 대학생의 경우, 전공별로 보면 자연계열이 201명이고 인문사회 계열은 153명이었다. 연령별로는 15-16세 99명, 17-18세 378명, 19-20세가 180명 21세 이상이 70명이었다.

측정도구

평등의식검사

참가자들이 자리에 앉으면 '남녀의식조사'라는 제목 하에 성 평등의식과 관련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질문,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적 태도를 재는 측정치가 들어있는 소책자를 나누어주었다. 소책자 속에는 김양희와 정경아(2000)가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80 문항에 대하여 7점 척도상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이 문항들은 가정생활, 교육생활, 직업생활, 그리고 사회문화의 네 개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높은 평등지향성을 보이는 것이었다. 남녀 평등의식의 하위 영역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가정생활 $\alpha = .856$, 교육생활은 $\alpha = .856$, 직업생활은 $\alpha = .856$, 사회문화는 $\alpha = .856$ 였다(표 4 참조).

성정체성

성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여성남성인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남성/여성이 다른 성으로 태어났을 때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본다.', '나는 여

성/남성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나는 남성/여성으로 태어나서 같은 성의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 '나는 남성/여성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한다.'의 5개 문항들 7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였는데 이 척도에서는 자신이 속한 남녀 성 집단에 속해 있음으로서 얻는 가치감, 호감, 자긍심, 소속감을 재는 것이었다. 성정체성문항들의 요인 분석 결과와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집단자존감의 1요인을 통해서 설명되는 설명량은 100%였고, 내적일치도 계수는 .704였다. 따라서 성정체감은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뢰로운 측정치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클수록 성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홍기원(2001)의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여성/남성이기 때문에 경제적 으로 만족한다.', '나는 남성/여성인 점 때문에 학교 당국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는다.', '나는 여성/남성이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느낀다.', '나는 여성/남성으로 태어나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나는 남성/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등 5개 문항을 7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하였다.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문항들의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의 1요인을 통해서 설명되는 설명량은 100%였고, 내적일치도 계수는 .687였다. 따라서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은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뢰로운 측정치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클수록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성정체성과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문항들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구성개념 및 문항	총점- 문항상관	자기문항 제거시 α 계수	요 인 부하량	공통분
성 정체성				
EM1나는 여성/남성 인 것을 좋아한다.	.724	.524	.585	.602
EM2나는 남성/여성이 다른 성으로 태어났을 때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본다.	.368	.135	.302	.726
EM3나는 여성/남성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763	.583	.609	.595
EM4나는 남성/여성으로 태어나서 같은 성의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	.434	.188	.362	.693
EM5나는 남성/여성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한다.	.612	.374	.484	.645
	고유치 1.80		α계수 .704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SA1나는 여성/남성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만족한다	.451	.203	.395	.657
SA2나는 남성/여성인 점 때문에 학교 당국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는다	.669	.447	.540	.598
SA3나는 여성/남성이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느낀다	.437	.191	.366	.678
SA4나는 여성/남성으로 태어나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715	.512	.556	.590
SA5나는 남성/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받는다.	.539	.291	.383	.662
	고유치 1.64		α계수 .687	

표 3. 집단 자존감 문항들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구성개념 및 문항	총점- 문항상관	자기문항 제거시 α 계수	요 인 부하량	공통분
cse1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속한 사회 집단들이 무능한 사회 집단들이라고 본다(R)	.501	.841	.536	.288
cse2 나는 내가 속한 사회 집단들에서 가치로운 구성원이다	.527	.839	.584	.341
cse3 나는 가끔 내가 어떤 사회 집단들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유감스럽다(R)	.384	.848	.413	.170
cse4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사회 집단들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R).	.255	.855	.265	.070
cse5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속한 사회 집단들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495	.841	.549	.301
cse6 나는 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들에 별로 공헌할 바가 없다고 느낀다(R).	.489	.841	.520	.270
cse7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속한 사회 집단들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594	.835	.666	.444
cse8 내가 속한 사회집단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나의 의식에 중요하지 않다(R).	.431	.845	.456	.208
cse9 전반적으로, 나는 내가 속한 사회 집단들이 가치롭지 못하다고 느낀다(R).	.615	.834	.662	.439
cse10 일반적으로, 사회집단들의 구성원이 됨은 나의 자아개념의 주요부분을 이루고 있다	.443	.844	.489	.239
cse11 나는 내가 속한 사회 집단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낀다	.651	.831	.728	.531
cse12 나는 종종 내가 속한 사회 집단들에서 나 자신이 쓸모없는 구성원이라고 느낀다 (R).	.444	.844	.472	.223
cse13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속한 사회 집단들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 (R).	.538	.838	.577	.333
cse14 나는 내가 속한 사회 집단들에서 협조적인 구성원 중의 하나이다.	.575	.836	.639	.409
	고유치 4.27		α계수 .951	

집단지존심

집단지존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Luhtanen과 Crocker (1992)가 개발하고 김혜숙(1994)이 번안한 집단적 자존심(collective self-esteem)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이 속한 성 집단이나 다른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어 갖는 느낌을 알아보는 것으로서 원래의 문항은 16개였으나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번안한 14개 문항에 대하여 7점 척도 상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집단 자존감 문항들의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집단자존감의 1요인을 통해서 설명되는 설명량은 95%였고, 내적일치도 계수는 .951였다. 따라서 집단자존감은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뢰로운 측정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른 남녀평등의식 검사에서의 차이를 알아보았다(표 4, 표 5 참조). 연구 결과,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남성의 평등의식이 여성의 평등의식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전체 평등의식 평균은 각각 4.57과 5.55였다. 각 영역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가정분야가 가장 높았고(남 : 4.81 vs 여 : 5.82), 그 다음은 직업분야(남 : 4.69 vs 여 : 5.77), 교육분야(남 : 4.67 vs 여 : 5.60), 사회문화 분야(남 : 4.09 vs 여 : 5.03)의 순으로 나왔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15세부터 27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회귀분석을 통해서 연령에 따른 평등의식 차이를 살펴해보았다(표 5 참조). 연구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등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2, p < .652$). 하위 영역에서도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등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차이

먼저 가설로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남녀평등의식 검사를 통해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들을 반복검증하기 위해서 성별과 학력, 그리고 연령에

성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그리고 집단 자존감이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상관분석(성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집단 자존감과 남녀평등의식)

표 4. 성별과 학력에 따른 남녀평등의식 차이

평등검사척도 분야	a	문항 총점상관	성별		t값
			남	여	
가정	.8563	.25~.59	4.81(.79)	5.82(.65)	20.28***
교육	.8512	.24~.60	4.67(.75)	5.60(.64)	18.01***
직업	.8617	.13~.67	4.69(.72)	5.77(.66)	21.13***
사회문화	.7470	-.05~.50	4.09(.54)	5.03(.58)	22.75***
전체			4.57(.59)	5.55(.57)	23.16***

주 1) ()는 표준편차

주 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이하 동일

주 3)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에서 평등의식수준이 높음을 의미

표 5. 연령에 따른 남녀평등의식 차이

		자유도	B	표준오차	t	β
가정(R ² = 0.005)	연령	1	-.026	.014	-1.87+	-.078
교육(R ² = 0.006)	연령	1	-.030	.014	-2.11*	-.077
직업(R ² = 0.015)	연령	1	-.049	.015	-3.36***	-.122
사회문화(R ² = 0.014)	연령	1	-.040	.012	-3.28**	-.119
전체(R ² = 0.011)	연령	1	-.036	.013	-2.85**	-.104

성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그리고 집단 자존감과 남녀평등의식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먼저 남성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의 성정체성은 전체 남녀평등의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사회문화의 하위 분야에서만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비록 남성의 성정체성에 따라 남녀평등의식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지만, 가설의 방향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성정체성은 전체 남녀평등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여성 성정체성이 남녀 평등의식에 미치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여성이 경우, 자신의 성에 대해 가치를 느끼고 있고 자신의 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수록 평등의식이 높아졌다.

표 6에서 남녀 모두에서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과 남녀평등의식은 전체와 각 하위분야에서 남녀 모두 부적 상관의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자신의 성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낮아진다고 예측은 지지되었다. 즉 남성과 여성 모

표 6. 성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집단 자존감과 남녀평등의식간의 상관행렬

	가 정	교 육	직 업	사회문화	전체
남성					
성정체성	-.041	-.048	-.032	-.101*	-.060
자신 성에 만족	-.206***	-.219***	-.213***	-.154***	-.230***
집단자존감	.196***	.191***	.199***	.118**	.205***
여성					
성정체성	.122*	.082	.141**	.099+	.125*
자신 성에 만족	-.206***	-.186***	-.204***	-.209***	-.225***
집단자존감	.164**	.164**	.158**	.147**	.178***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두 자신의 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자유롭다고 느끼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남녀 모두에서 평등의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자존감이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남녀에 관계없이 집단자존감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공헌할 수 있고, 집단에 영향을 받고 집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과 같이 여성의 경우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공헌할 수 있고, 집단에 영향을 받고, 집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집단자존감이 남성들

의 죄의식에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경우 부정적 정체성을 개선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단계적 회귀분석(성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집단 자존감에 의한 남녀 평등의식의 중다예언)

남녀 각각에서 성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집단 자존감의 예측변인들이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와 종합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3개의 예측변인 중에서 남녀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집단자존감 ($\beta = .318, p < .001$),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beta = -.270, p < .001$)의 순으로 나타났고, 성정체성은 유의미한

표 7. 남성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β	Sr^2	누적 Sr^2	t
가정					
1	집단자존감	.292	.068	.068	6.17***
2	자신 성에 만족	-.064	.064	.132	-5.39***
교육					
1	집단자존감	.304	.073	.073	6.50***
2	자신 성에 만족	-.199	.073	.145	-5.78***
직업					
1	집단자존감	.294	.068	.068	6.23***
2	자신 성에 만족	-.264	.068	.137	-5.58***
사회문화					
1	집단자존감	.292	.071	.071	6.12***
2	자신 성에 만족	-.201	.043	.114	-4.35***
전체					
1	집단자존감	.318	.081	.081	6.80***
2	자신 성에 만족	-.270	.072	.153	-5.77***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변인은 평등의식전체에서 15.3%의 설명량을 보였다. 각각의 하위 범주에서 또한 집단자존감과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11.4%~14.5%의 설명량을 보였다. 즉 남성의 남녀평등의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남성에게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가치 있는 구성원이고, 집단에 공헌하는 바가 크며, 쓸모있고, 유능한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높여주는 것이며, 반대로 자신이 남성이기 때문에 좀 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특별대우와 좋은 대우를 받는 다는 인식

을 줄이는 것이 남성으로 하여금 남녀평등의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남성에서 3개의 예측변인 모두 남녀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직접효과를 보이는 변수는 자신의 성에 만족($\beta=.327, p<.001$)이 나타났고, 집단자존감($\beta=.327, p<.001$), 성정체성($\beta=.327, p<.001$)이 다음으로 영향을 미쳤다. 세 변인의 전체 설명량은 평등의식전체에서 9.2%를 차지했다. 각각의 하위 범주에서 또한 자신성에 만족, 집단자존감, 성정체

표 8. 여성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β	Sr^2	누적 Sr^2	t
가정					
1	자신 성에 만족	-.193	.047	.047	-2.71**
2	집단자존감	.178	.019	.063	3.59***
3	성정체성	.151	.019	.084	3.33***
교육					
1	자신 성에 만족	-.188	.038	.038	-1.61+
2	집단자존감	.171	.021	.059	3.71***
3	성정체성	.090	.006	.066	3.49***
직업					
1	자신 성에 만족	-.189	.042	.041	-2.27*
2	집단자존감	.196	.026	.067	3.65***
3	성정체성	.127	.013	.080	3.53***
사회문화					
1	자신 성에 만족	-.205	.052	.052	-3.68***
2	집단자존감	.183	.026	.098	3.43***
3	성정체성	.122	.013	.092	2.28*
전체					
1	자신 성에 만족	-.206	.053	.053	-2.77**
2	집단자존감	.184	.020	.073	3.86***
3	성정체성	.153	.020	.092	3.45***

주. + $p<.10$, * $p<.05$, ** $p<.01$, *** $p<.001$

성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6.6%~9.2%의 설명량을 보였다. 이 결과를 해석해 보면 여성의 남녀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먼저 여성에게 자신이 받고 있는 특별대우나 혜택이 여성이라는 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며,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공헌하는 바가 크며, 가치 있고, 쓸모 있고, 유능한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높여주며,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가치 있는 것이며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남녀평등의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성별, 연령별, 학력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차이와 남녀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집단에 대한 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집단 자존심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의 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등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의 평등의식 차이는 기존의 남녀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결과(김양희와 정경아, 2000; 대

한주부클럽 연합회가 조사한 남녀평등실천지수, 한겨레신문, 1999. 8. 11)와 일관된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등의식이 낮아지는 결과는 김양희와 정경아(1999)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연령에 따른 상대적 지위가 상승하게 되고, 이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위가 낮은 계층을 차별하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종합적으로 남자 집단의 경우, 정체성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낮고, 반대로 여성의 경우는 정체성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은지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남녀평등의식에서 정체성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다($\beta=.357, p<.001$). 각각의 가정($\beta=.327, p<.001$), 교육($\beta=.269, p<.001$), 직업($\beta=.339, p<.001$), 사회문화($\beta=.394, p<.001$) 모두에서 정체성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의 해석을 위해서 정체성을 평균 4.86을 기준으로 상하범주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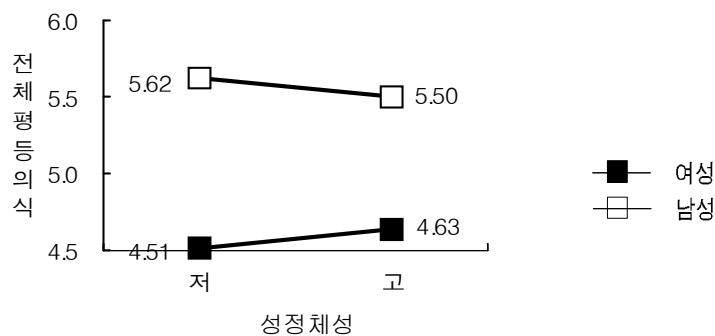


그림 1. 남녀평등의식에서 정체성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할하여 범주 변수화하여 성정체성과 성별의 두 범주에 따른 평균을 비교한 결과 가운데 전체 남녀평등의식 결과가 그림 1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성정체성이 높을수록 평등의식이 낮고, 여성의 경우 성정체성이 높을수록 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자신의 성범주를 통해서 높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남녀평등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형성된 긍정적 정체성에 남녀평등의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덜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여성이 자신의 성범주를 통해서 높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통해서 형성된 부정적 정체성을 남녀평등의식을 통해서 개선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남녀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수로 성정체성과,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집단적 자존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의 경우 집단 자존감,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집단 자존감, 성정체성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남성의 경우,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가치 있고, 공헌도가 크며, 유능한 구성원이라는 자각과, 남성이라는 '성' 범주를 통해서 얻게 되는 특별대우와 이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줄여 주어야 남녀평등의식을 높일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여성 개인이 받은 특별대우나 혜택을 성범주에 귀인시키지 말아야 하며,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가치 있고, 자존감을 불러 넣어 줄 수 있는 구성원으로 인식시키며,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남녀평등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

로 성정체성은 성별에 따라 남녀평등의식에서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의 경우 성정체성이 낮을수록 평등의식이 낮았고, 여성의 경우 성정체성이 높을수록 평등의식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지금까지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열등한 지위에서 갖게 되는 부적인 사회정체성을 관리하는 전략에 뿐만이 아니라 이론의 적용범위를 넓혀서 한국 사회에서 고지위 집단에 해당하는 남성들이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는 조건을 알아낸 결과를 얻었다는데도 이론적 측면의 의의가 있다. 남성들에게 남녀평등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성으로서의 자부심은 낮추고, 성범주가 아닌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자존감을 불러 넣어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여성들에게 남녀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남성들과 같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자존감을 불러 넣어주고, 자신의 성범주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하며, 성범주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낮춰주어야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해 준다.

참고문헌

- 김금미 (2001). 집단의 사회정체성과 지위에 따른 내집단편애-성별집단과 최소집단에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금미, 한영석 (2003). 남성의 양성평등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 여성연구 64호. 5-44.
- 김금미, 한영석 (2002). 여성의 합법성, 안정성 및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3), 1-20.

- 김득란 (1992). 양성적 남녀의 성역할 반응양식과 관련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양희, 정경아 (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3-44.
- 손승영, 박숙자, 전방지, 조순경, 진수희, 황석만 (1999). 여성의 일과 삶의 질.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 정진경 (1990). 한국성역할검사. 한국심리학회 1990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초록, 57-67.
- 차경호 (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호서대 논문집, 18, 575-595.
- 한겨레신문 (1999. 8. 11).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 평등의식이 낮다.
- 한덕웅 (2002). 집단행동이론. 시그마프레스.
- 홍기원 (2001). 남녀의 성차의식의 내용에 관한 연구. 미발표.
- Branscombe, N. R., Slugoski, B., & Kappen, D. (1977). *Collective guilt: Measuring its components and its consequence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Kansas.
- Brewer, M. 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y Bulletin*, 86, 307-324.
- Hogg, M. A., & Abrams, D. (1990). *Social Identifications: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Jackson, L. A., Sullivan, L. A., Harnish, R., & Hodge, C. N. (1996). Achieving positive social identity: Social mobility, social creativity, and permeability of group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241-254.
- Karasawa, M. (1991). Toward and assessment of social identity: The structure of group identification and its effects on ingroup evalu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293-307.
- Lalonde, R. N., & Silverman, R. A. (1994). Behavioral preferences in response to social injustice: The effects of group permeability and social identity sa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78-85.
- Mullen, B., Brown, R., & Smith, C. (1992). Ingroup bias as a function of salience, relevance, and status: An integr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103-122.
- Reichl, A., J. (1997). Ingroup favoritism and outgroup favoritism in low status minimal groups: Differential responses to status-related and status-unrelated measur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 617-633.
- Tajfel, H. (1978).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intergroup relations.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London: Academic Press.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7-24). Chicago. IL: Nelson-Hall.

The Effect of Gender Identity, Satisfaction with one's Gender Group and Collective Self-esteem on Gender Egalitarianism

Ki-Won Hong

Myoung-So Kim

Young-Seok Han

Hoseo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Seven hundred and fifty four students were surveyed to examine the effect of gender identity, gender satisfaction and collective self-esteem on gender egalitarianism. We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four sub-areas of gender egalitarianism between genders and ages. Namely, the female students are more conscious of gender egalitarianism than the male. Above all, the younger, the more they feel equal. Specifically, for the male group, the more satisfied with one's gender group and the higher in collective self-esteem, the more conscious of gender egalitarianism they are. For the female group, the more satisfied with one's gender group and the higher in collective self-esteem and gender identity, the more conscious of gender egalitarianism they ar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opics to be investigated in the future study were mentioned.

Keywords : *gender identity, satisfaction with one's gender group, collective self-esteem, gender egalitarianism*